



슈, 카지노빔 6억 파장

사기 피소…도박 처벌은 면할 듯
20여편 CF 위약금 ‘후폭풍’ 예상

1990년대 활약한 걸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37)가 수익 원대의 도박자금 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피소돼 충격을 주는 가운데 향후 그가 감당해야 할 법적·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5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성필)에 따르면 슈는 올해 6월 서울 광장동 파라다이스위커펜 카지노에서 2명으로부터 각각 3만5000만원과 2억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돼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카지노는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곳이지만 슈는 외국 국적이어서 출입이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연예인 신분이라는 점을 고려해 고소 배경과 내용의 진위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상습도박 등 혐의 적용 여부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로 입건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외국 국적인 것은 맞지만 우리나라 국적을 함께 가진 이중국적인지는 모른다. 자주 도박장을 찾았는지는 불분명하다. 개인적 재산분쟁이 모두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사기죄 기소율은 높지 않은 편이다. 개인 간 사기로 기소되는 것은 10%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슈는 빚을 모두 변제하면 도박에 대한 처벌은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중의 반응은 냉랭하다. 사건이 처음 알려진 3일 슈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가 여론 악화에 피소 사실을 인정했다. 대중은 한 번의 입장을 반복하고 사과한 그의 행동을 포함한 그동안 방송 등에서 보여준 모습과 전혀 다른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점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슈는 CF에도 여러 편 출연해 이와 관련한 법적 다툼이 생길 여지도 다분하다. 슈는 2월 MBC에브리원 ‘비디오스타’에 출연해 자녀들과 광고 20편 이상을 찍었다고 밝힌 바 있다. 슈는 그만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광고 위약금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대개 스타들의 광고 계약 조항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취지의 항목이 포함된다.

슈는 1990년대 가요계 요정에서 최근 ‘다둥이 엄마’의 친근한 이미지로 대중의 사랑을 받은 만큼 이번 사기 피소에 따른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뉴시스

현아-이던, 하루만에 말 바꾸고 열애 인정 ‘팬들이 뿔났다’



프로젝트그룹 트리플H의 현아(오른쪽)와 이던이 교제 사실을 부인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하면서 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사진은 7월18일 두 사람이 트리플H 쇼케이스에서 무대를 함께 하는 모습. 김진희 기자 kwangshin00@donga.com

“열애 사실보다, 뻔한 거짓말 배신감”

뒤늦은 고백에 팬들 거센 비난
트리플H, 방송·활동 모두 중단
소속사 미흡한 대처 신뢰 추락

“팬들을 기만한 죄?”

성숙하지 못한 생각과 행동이 비난의 화살로 돌아왔다.

혼성 프로젝트그룹 트리플H로 활동 중인 가수 현아(26)와 아이돌그룹 펜타곤의 이던(24)이 ‘열애 후폭풍’을 맞고 있다. 두 사람은 “팬들에게만은 솔직하고 싶었다”며 2년째 연애 중인 사실을 공개했지만, 팬들은 오히려 “우리를 기만했다”고 분노하고 있다.

앞서 2일 두 사람이 연인 사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이들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즉각 “친한 사이일 뿐이다. 연애는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현아는 이튿날 입장을 번복해 “팬들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즐겁게 당당하게 무대 위에서 열심히 하겠다”며 SNS

를 통해 이던과 연인 사이임을 고백했다. 팬들에게 ‘거짓말’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당당하게 무대를 꾸미겠다”는 이들의 ‘작은 소망’과 달리 팬들의 반발은 거셌다.

현아의 고백 이후 이들의 공식 SNS와 각종 인터넷게시판 등에는 “처음부터 우리를 속였다” “연애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뻔한 거짓말로 우롱했다” “배신감에 치가 떨린다” “철저히 팬들을 무시한 이기적인 선택”이라는 비난의 댓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열애와 거짓말에 대한 ‘역풍’이 겹잡을 수 없이 커지자 소속사 측은 4일 예정했던 팬사인회를 취소하고 환불 조치 계획을 발표했고, 아울러 이날 MBC ‘쇼! 음악중심’과 5일 SBS ‘인기가요’ 출연도 취소했다. 또 남아 있던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서둘러 활동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소속사 측은 스케줄 취소에 대해 “내부 사정”이라며 구체적인 설명은 피했지만 팬들의 반발을 의식한 대응으로 보인다.

두 사람 뿐만 아니라 소속사의 안일하고 미흡한 대처에도 비난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당초 두 사람이 연인이라는 사실이 처음 공개됐을 때 당사자들과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이고 즉각적으로 부인했고, 결국 하루 만에 당사자가 직접 입장을 번복하면서 실망감을 안겼기 때문이다.

3일 소속사는 보도자료로 통해 “먼저 마음에 상처를 입으셨을 팬들에게 사과와 말씀을 전한다”며 “(열애)사실을 확인하는 데 있어 커뮤니케이션 오류로 인해 잘못된 보도가 나가게 된 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솔직한 두 사람의 만남을 따듯하고 애정 어린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팬들은 “팬덤으로 먹고사는 아이돌 멤버를 의식해서 거짓말했다가 오히려 논란을 키운 꼴이 됐다”며 “가수뿐만 아니라 소속사에 대한 신뢰도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비난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연예

13

2018년 8월 6일 월요일

스포츠동아

이해리의 사사로운 이야기



고레에다 히로카즈

박서준

“불편한 질문 하지도 말라” 답할 의무 망각한 스타들

모든 변화의 시작은 공급증에서 출발한다. 세상을 바꾼 발명도, 감춰진 진실이 드러나는 과정도 그렇다. 사회적 이슈와 유명한 사람의 일에 공급증과 호기심을 갖는 일은 특정 직업군에만 부여된 역할도 아니다. 누구나 궁금해 할 수 있고, 물을 수 있다.

며칠 전 일본의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영화 ‘어느 가족’ 개봉에 맞춰 내한해 취재진과 간담회를 가졌다. 워낙 인기가 많은 감독인데다 마침 올해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까지 받은 터였다. 겉출한 작품을 탄생시킨 그를 향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컸다.

그만큼 시선이 집중된 자리. 하지만 주최 측은 간담회 전 ‘작품과 관련한 질문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 당부를 듣는 순간, 대체 감독이 꺼리는 질문이 뭘까. 공급증이 더 일었다.

칸 국제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했는데도 평소 감독을 지지하지 않는 일본 아베 총리가 축하 전화도 하지 않았다는 소식이 몇 차례 전해진 뒤였다. 이후 일본 내 감독과 작품을 향한 정치권의 반응이 차츰 알려지기도 했다.

같은 시기 진행된 연기자 박서준의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부탁이 나왔다. 박민영과 열애 사실이 보도된 이후 진행된 인터뷰인 탓에 공급증이 증폭되던 때였다. 라운드테이블로 진행된 인터뷰에 처음 나서면서 박서준은 소속사 관계자의 입을 빌려 ‘되도록 작품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싶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한 차례 전했다.

드러나지 않은 사실도, 숨겨야 할 진실을 향한 공급증도 아니다. 작품을 만든 감독, 자신을 둘러싼 대중의 관심사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마저 차단하려는 움직임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물론 그런 부탁을 해온다고 해서 묻지 않는 것도 아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도, 박서준도 결국 질문을 받았다. 두 사람에게만 그런 게 아니다. 묻지 말라고 하는 내용은 대부분은 모두가 궁금해 하는 사안일 때가 많다.

누군가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다. ‘답하지 않을 권리’도 있지 않느냐고, 적어도 대중과 소통하고 대중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위치에 있는 이들에겐 ‘답할 의무’가 먼저 아닐까.

엔터테인먼트부 기자 golf1024@donga.com

편집 | 김건태 기자 bong82@donga.com

고수, 10년 만에 일본팬 만난다

12월 팬미팅…‘옥중화’ 인기 한몫

연기자 고수가 10년 만에 일본 팬들과 만난다.

고수는 12월21일 일본 도쿄 메구로의 파시몬홀에서 팬미팅을 연다. 팬미팅 주최 측은 “8년 만의 일본 방문”이라고 밝혔지만, 현지에서 팬들과 진행하는 공식 행사는 2008년 군 제대 이후 두 번째이자 무려

10년 만이어서 관심이 뜨겁다.

고수의 이번 일본 팬미팅은 드라마 ‘옥중화’의 인기로 성사됐다. 2016년 방송한 MBC 사극 ‘옥중화’에서 고수는 왕폐의 매력과 정의로움을 표출하는 캐릭터를 소화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특히 여주인공 옥녀(진세연)를 ‘키다리 아저씨’처럼 보살피며 챙기는 모습은 여성들의 감성을 자극했다.



고수

국내 반응은 일본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우선 이병훈 PD가 연출한다는 점에서 먼저 주목을 받았다. 이 PD는 ‘대장금’ ‘마의’ 등 인기 사극을 잇달아 연출해 일본에서도 유명한 ‘한류 PD’로 통한다. 여기에 고수가 3년 만의 복귀작으로 ‘옥중화’를 선택해 이 PD와 호흡을 맞춘다는 사실에 현지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고수의 활약에 힘입어 드라마는 11월 국내 종영 전인 9월 CS채널 위

성극장이 방영했으며, 2017년 4월에는 NHK 위성채널인 BS프리미엄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올해 4월8일부터는 NHK 지상파가 방영중이다. 케이블, 위성, 지상파채널을 거치며 현지 시청자의 인기를 얻어 고수의 일본 방문까지 이어진 것이다.

고수는 일본 방문에 앞서 9월 방송하는 SBS 새 드라마 ‘흥부외과’로 2년 만에 안방극장으로 돌아온다. 이번 드라마를 통해 첫 의학 장르에 도전하는 그는 흥부외과에서 벌어지는 의사들의 모습을 실감나게 보여줄 예정이다.

백슬미 기자